

관상동맥 중재술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예후인자 비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강연주 · 채연경 · 배은희 · 박정우 · 마성권 · 김수완

Prognostic Factors of Coronary Intervention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Yeon Joo Kang, Yeon Kyeong Chae, Eun Hui Bae, Jeong Woo Park, Seong Kwon Ma, Soo Wa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배 경: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장기 추적관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간의 예후에 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장기 추적관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에서 예후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전남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던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을 시행하였던 환자는 제외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를 I군 (n=30), 복막투석 환자를 II군 (n=6)으로 하여 장기 추적관찰시 예후인자를 분석하였다.

결 과: I군의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59.1±10.00세 vs. 49.1±11.02세, p=0.035), 각 군의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흡연력 등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는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석 기간은 I군 12.0±18.39개월, II군 18.5±4.37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후 TIMI III혈류를 획득하였다. 중재술 시술 전 후 Cr수치의 증가는 I군 2.8±3.39 mg/dL, II군 3.2±2.14 mg/dL로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개월 추적관찰 후 주요 심장사건은 I군에서 목표혈관 재개통 4예 (13.3%), II 군에서 사망 1예 (16.6%)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2개월 후 주요 심장사건은 I군에서 급성 심근경색 1예 (2.7%), 사망 1예 (2.7%) 발생하였고, II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관상동맥 중재술은 투석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도 투석방법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었으며, 장기 추적관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예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ey Words: 관상동맥중재술, 복막투석, 혈액투석

Coronary intervention, Peritoneal dialysis, Hemodialysis